

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이연진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파견기간	1학기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학교는 작지만 있을건 다 있고 도서관 건물이 좋습니다. 그래서 자주 수업 후에 도서관에 가서 숙제하고 팀플도 하고 그랬습니다. 학교는 홈스테이 집과 걸어서 15분~20분 정도 걸려서 항상 걸어 다녔고 다운타운으로 향하는 스카이트레인 정류장과도 가까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학교 내에 팀홀튼 등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점심을 못 싸올 때는 사먹기도 했습니다. 캐나다에 있는 건지 중국에 있는 건지 중국인이 너무 많았습니다.
수업	학교에 간 첫 날에 분반을 위한 시험을 봅니다. 저는 토익으로 학교를 가서 잘 몰랐는데 토플로 교환 온 언니들이 토플시험이랑 비슷했다고 했고요. 읽기, 듣기, 쓰기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는 팀을 짜서 나눠준 질문지 보고 돌아가면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스피킹 테스트를 했습니다. 말하기를 좀 더 배우고자 갔지만 수업은 주로 읽기, 쓰기, 듣기를 강의했고요. 선생님은 반마다 달랐겠지만 첫 번째 세션 담당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좋았고 두 번째 세션 선생님은 설렁설렁 하는 거 같았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강의하셨습니다.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제들은 어려움이 없었고 조별과제는 의지가 없는 중국인이랑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. 수업 전에는 전날 내준 숙제만 가면 되고 교과서는 따로 없이 날마다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주셨습니다.
프로그램 운영	처음 갔을 때 분반시험 포함해서 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.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IE(international education)office가서 물어봤었습니다. 그리고 홈스테이 담당 브래드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.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블로그에서 밴쿠버 하나도 안 춥다고 그랬는데 비오면 시리게 춥습니다. 처음 밴쿠버 갔을 때 8월 말, 9월에는 덥고 햇빛도 강렬해서 선글라스, 선크림 필수였고 10월부터는 비만 계속 내리고 추웠습니다. 비 안 오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춥습니다. 비 올 때는 햇빛을 못 봐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. 레인부츠랑 우산 챙기는게 좋습니다.</p>
안전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밤에 아무도 안 돌아 다녀서 한국처럼 밤에 돌아 다닐 수 없었고요. 10월 접어 들면서 4시반 5시만 되도 어두워집니다.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안전했습니다.</p>
숙소	<p>필리핀가정 홈스테이에서 지냈습니다. 갓난애기가 있는 집이라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좀 짜증났지만 견딜 만 했고 집 밥은 먹을 만했습니다. 저녁을 제외하고 아침과 점심은 개인적으로 설거지를 해야 하고 아침도 개인적으로 준비해 먹어야 합니다. 점심은 학교 가서 먹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서 준비해줍니다. 빨래는 개인적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. 방바닥이 카펫 이었는데 방바닥청소는 홈스테이 가족이 해주었고 방 쓰레기통도 청소해주실 때 같이 비워주셨습니다.</p>
식사	<p>홈스테이 비용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 집에서 식사하도록 했고 놀다가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밖에서 사먹었습니다. 홈스테이 집에서는 쌀밥과 필리핀식 식사를 주로 했고 저를 위해 김치도 제공해 주었습니다.</p>
교통	<p>걸어서 통학했습니다. 다운타운으로 가려면 학교 근처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갔고 저는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을 매일 타지 않기 때문에 버스티켓을 10일치를 사서 사용했습니다. 10일 짜리는 21달러고 한번 싹 탈 때는 2.75달러고 1달치도 있었는데 얼마인지는 안사봐서 모르겠습니다. 비쌌던 거 같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2,278,900원	왕복
Fees	순천향대에 학비를 냈습니다.(₩3,805,000)	
보험료	국내에서 여행자 보험 구입 (208,800원)	
숙소	홈스테이 총 CAD2750	3달*CAD750+8월달 4일*25CAD+12월달 14일*CAD25
식비	약 CAD 500	한 달에 약 CAD 150정도 씬
교통비	약 CAD 105	10일치 21달러짜리*5
책값	CAD33.6	8.40달러짜리 소설책 총 4권
합계	6,292,700원+CAD3,388.6(약339만원)=6,293,039원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우산, 멀티탭, 110볼트로 바꿀 수 있는 변환기, 노트 한 권, 필기구들 챙겨가세요. 한국보다 비싸서 사기 돈 아까워요. 엄청 건조해요.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만들어오면 편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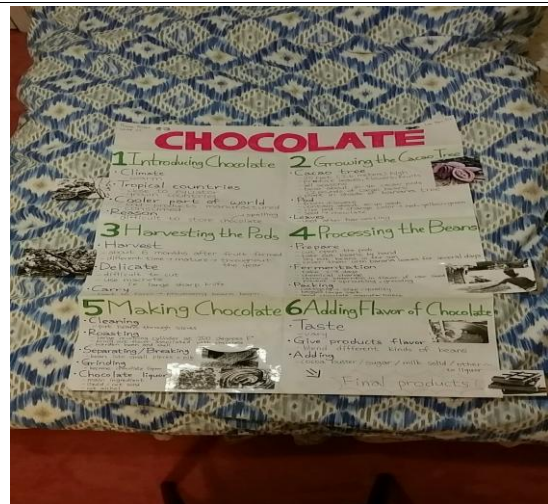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처음 수업할 때는 하루 4시간 밖에 안 해서 왜이리 갈딱갈딱 조금씩만 할까 고등학생 때처럼 하루에 몰아서 몇 번하고 여행 다닐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학교생활하고 선생님께서 해주신 숙제 해가면서 수업시간도 적절하고 해주신 숙제의 양도 적절했다. 숙제를 할 때는 많다고 불평했지만 나중에 읽거나 쓰기 테스트를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. 순천향대에서 같이 파견된 언니들이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다. 이번 기회가 크게 내 영어실력을 향상 시킨 것은 아니지만 잘 다져준 것 같다.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면 크게 향상될 것 같다. 외국인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는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두 번째 세션 반 친구들과 선생님



첫 세션 첫 프로젝트 포스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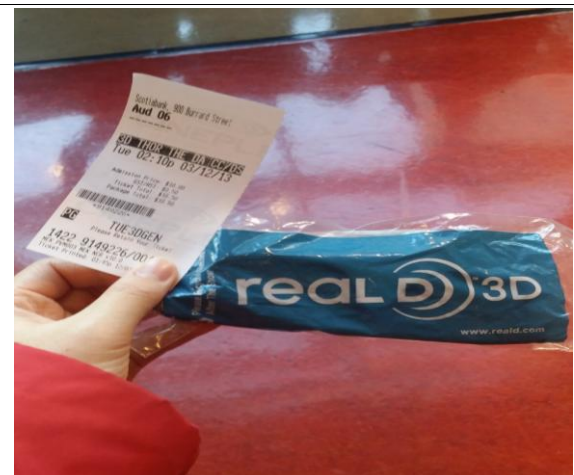
캐나다에만 있는 도넛&커피 브랜드 팀홀튼!



홈스테이 가족에게서 받은 생일편지와 티셔츠



퀸 엘리자베스 공원 갔을 때



해외에서 본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 (Thor)